

학교 문법에서의 ‘이다’ 처리 문제 재고

박정규(단국대)

<차 례>

1. 들어가기
 2. 현행 학교 문법에서 ‘서술격 조사’의 관점을 채택한 이유
 3. ‘서술격 조사’ 관점의 채택으로 야기되는 근본적인 문제들
 4. ‘서술격 조사’ 관점의 채택으로 야기되는 또 다른 문제들
 5. 자칫수로 살핀 ‘서술격 조사’ 관점의 결정적인 문제점
 6. 나오기
-

【벼리】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전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와 문법’이라는 과목명으로 문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학교 문법은 1985년에 국정 체제로 발간된 문법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므로, 과거의 문법서에서 나타났던 제반 문제들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는 현재의 학교 문법이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외국인에게까지 한국어에 대한 오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즉 우리나라의 학교 문법은, 모국어 화자들에게는 ‘최종 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외에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는 ‘표준 문법’ 내지는 ‘대표 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학교 문법에 내재되어 있는 잘못된 설명은 자칫하면 모국어 및 한국어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 시작에는, 학교 문법에서 현재 ‘서술격 조사’라고 설명이 되고 있는 ‘이다’의 처리 문제가 자리하고 있으나, 국어의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현상을 검토해 보면, ‘이다’를 더 이상 ‘서술격 조사’로 처리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하여 검토 결과 ‘이다’는 ‘형용사’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무난함을 논의하였는데, 이

렇게 하면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처리하면서 부수적으로 야기되는 문제들, 예컨대, ‘보어의 범위’ 문제 및 ‘필수적 부사어’의 설정과 같은 변칙적인 문제들 또한 정리될 수 있음을 아울러 논의하였다.

* 주제어 : 학교 문법, 서술격 조사 ‘이다’, 형용사, 보어, 최종 문법, 표준 문법, 대표 문법

1. 들어가기

2017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와 문법’이라는 교과목 명으로 국어 문법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는, 1985년부터 2011년까지 28년 동안 인문사회계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문법을 교육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학생이라면 누구나 국어 현상에 대한 최소한의 문법적 지식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환영받아 마땅한 일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중학교 이전부터 외국어로서의 영어 및 영어에 대한 문법적 지식을 익혀 왔던 사정과 비교해 본다면, 정작 모국어인 국어에 대한 문법적 교육은 상당히 소홀했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2012년부터 전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법 교육을 전면적으로 확대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현재의 학교 문법서에 나타난 ‘학교 문법’의 설명 방식이 과연 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문법 교육의 전면적 확대가, 학교 문법의 교육 내용이 학생들에게 국어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어의 현상을 왜곡할 수도 있는 내용으로 설명 방식이 제시되어 있다면, 다소 과격하게 말해서 차라리 가르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서는 여러 가지를 거론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서 현재의 학교 문법에서 ‘서술격 조사’로 설명되고 있는 ‘이다’의 문제를 거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¹⁾. 이는 현재 6종의 검인정 교과서 어디에서도 ‘이다’가 ‘서술격 조사’가 아닌 것으로 기술되고 있는 문법서는 한 종류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²⁾. 그러나 과연 ‘이다’가 ‘서술격 조사’라는 설명 방식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 것이며, ‘서술격 조사’로 처리하지 않는 다른 설명 방식은 전혀 재고의 여지가 없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본고의 관심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본고에서는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온당할 것이며, 과연 어느 정도의 문법적 실효성이 있는가를 다시 따져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우선은 현재의 학교 문법이 왜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처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필요한 만큼은 살필 필요를 느낀다.

- 1) 사실상 필자는 줄고(2015)를 통해, 학교 문법에서의 ‘이다’는 더 이상 ‘서술격 조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처리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견해를 이미 피력한 바가 있으나, 사실상 그 논의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긴 하지만 검인정 문법서로서 윤여탁 외 8인(2012)만을 대상으로 한데다, ‘이다’가 ‘서술격 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둔 나머지 ‘이다’가 ‘형용사’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 것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 ‘독서와 문법’이라는 과목명으로 발간되고 있는 6종 전체의 검인정 문법서를 바탕으로 하면서, 후술할 바와 같이, 국어의 부정 현상에 나타나는 자료의 검토를 통해, 학교 문법에서는 ‘이다’를 ‘형용사’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임을 제시하려고 한다.
- 2)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학교 문법 관계자들은 1985년 이전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학교 문법서의 내용이 교과서에 따라 상이하면 교육 현장의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혼란이 크기 때문에 1985년에 국정 체제의 단일 교과서가 등장한 것이 아니겠냐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취지는 아무리 검인정 체제로 바뀌어 6종의 교과서가 발간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어 보인다. 물론 이러한 지적은 맞다. 아무리 검인정 문법서라 하더라도 교과서의 내용 및 난이도를 저자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보면, 같은 범위의 내용을 다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지적은, 일단 2012년 이전의 국정 학교 문법서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것으로서, 만일 1985년부터 2011년까지 사용되었던 국정 문법서에 나타났던 오류가 현재의 검인정 문법서에서도 그대로 발견된다면, 현행 검인정 문법서 또한 오류의 책임에서 벗어나기가 여간해서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2. 현행 학교 문법에서 ‘서술격 조사’ 관점을 채택한 이유

위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하였다시피, 현행 학교 문법에서는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처리하고 있는데³⁾, 사실상 우리나라의 학교 문법에서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어제 · 오늘의 일은 아니다. 1985년 국정 체제의 단일 문법서가 등장하면서부터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처리하기로 확정하기 훨씬 이전에도,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에서의 문법 연구가 시작된 19세기 말부터 1984년까지, 대다수의 문법 연구자들이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다수의 문법서에서는 무슨 이유로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처리해 온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처리하게 된 데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논리가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을 보자.

(1) 가. 철수가 밥을 먹었다.

나. 철수가 학생이다.

즉 (1가)의 예에서 보듯이, ‘가’가 ‘철수’ 뒤에 통합되어 ‘철수’로 하여금 ‘주어’의 역할을 하게 하는 주격 조사이고, ‘을’이 ‘밥’ 뒤에 통합되어 ‘밥’으로 하여금 ‘목적어’의 역할을 하게 하는 목적격 조사인 것과 마찬가지로, (1나)에서의 ‘이다’ 또한 ‘명사’인 ‘학생’ 뒤에 통합되어 ‘학생’으로 하여금 ‘서술어’의

3) 예컨대, 박영목 외 4인(2017:66)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면서,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처럼 현행 학교 문법에서는 ‘이다’를 격 조사의 한 종류인 ‘서술격 조사’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가. 나에게 너의 소원을 말해 줘.

(부사격 조사) (관형격 조사) (목적격 조사)

나. 현수야, 내가 그 일을 도와줄게.

(호격 조사) (주격 조사)

다. 오늘은 새 학년이 되는 날이다.

(보격 조사) (서술격 조사)

역할을 하게 하기 때문에, 서술격 조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⁴⁾.

그러나 이 외에도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는 논리로서, 다음과 같은 논리 또한 ‘이다’를 ‘서술격 조사’라는 학교 문법적 처리 방식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이다’가 용언처럼 온전한 서술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2나)에서와 같이 어떤 경우에도 용언의 여간이 생략될 수 없는 일이나, (3나)인 “철수가 천재다”의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2) 가. 철수가 밥을 먹었다.

나. *철수가 밥을 Ø었다.

(3) 가. 철수가 학생이다.

나. 철수가 천재Ø다.

즉 위의 두 예를 보면, ‘이다’의 경우는 (3나)에서와 같이 ‘이-’가 생략되어도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는 (2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온전한 용언이라면 여간이 생략되는 현상이 절대로 불가능한 것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기 때문에,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강화

4) 이러한 논리에 따라 아래의 예를 보면, (가)에서와 같이 ‘이다’가 통합되지 않은 “*철수가 학생”과 같은 문장은 의미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 보이기 는 하지만, (나)에서는 “*철수가 학생”이라는 표현이 내포되어 사용될 경우 그대로 내포될 수는 없음을 알 수 있어서 (다)와 같이 ‘이다’가 통합되어 사용되어야만 하므로, ‘이다’가 ‘학생’으로 하여금 서술어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처리하는 것이 얼핏 보기에는 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가. *철수가 학생.

나. *[철수가 학생]이 드러났다.

다. [철수가 학생임]이 드러났다.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⁵⁾.

따라서 이 같은 논리에 의거하여, 1985년 이전의 검인정 교과서 시절에도 대다수의 학교 문법서들이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처리했었다는 연륜적 사실까지 아울러 고려할 경우⁶⁾,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처리하고 있는 현재의 학교 문법적 관점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3. ‘서술격 조사’ 관점의 채택으로 야기되는 근본적인 문제들

위에서 간단하게나마 현행 학교 문법서에서만뿐만 아니라 1985년 이전의 대부분의 학교 문법서에서도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처리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두 가지의 주된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문제는 과연 이러한 논리가 얼마나 타당하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교 문법서에서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처리하고 있다고 해서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설명하고 있는 방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과연 ‘이다’가 ‘명사’ 뒤에 통합되어 해당 명사를 ‘서술어’로 기능하게 하므로 ‘서술격 조사’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거나, ‘이다’를 온전한 용언으로 본다면 어간에 해당하는 ‘이-’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언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논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지 보다 정밀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다음을 보자.

5) 보기에 따라서는 이러한 논리가 첫 번째 논리보다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예컨대, 이승녕(1961: 294-299)을 보면, “名詞·代名詞·數詞의 敘述格은 活用함이 國語의 特記할 만한 點이다. 그리하여 體言 그 自體가 語幹이 되고 ‘이라’의 語尾가 活用하는데, 그 中에는 動詞·形容詞의 用言의 活用語尾와도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다’의 연결 조건이 “語幹과의 連結條件은 語幹末音에서 ‘-이라, -ㅣ라, -라’로 갈린다. 그러므로 ‘-이, -ㅣ, (zero)’가 語幹일 수는 없고 ‘이라, ㅣ라, 라’가 語尾가 된다. ‘-이라’의 ‘이’가 語幹이란 주장도 있으나,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語幹이 떨어지고 또 ‘-ㅣ라’의 ‘데지라’와 같이 音節도 形成할 수 없으니, 이같이 變貌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6) 이렇게 따진다면, 통일 문법 체계에 근거한 문법서가 출현한 것이 1967년이므로, 2017년을 기준으로 따져도 벌써 50년을 훌쩍 넘기는 오랜 기간이다.

- (4) 가. 가다 : 가고, 가나, 가니, 가므로 ...
 나. 예쁘다 : 예쁘고, 예쁘나, 예쁘니, 예쁘므로 ...
 다. 이다 : 이고, 이나, 이니, 이므로⁷⁾ ...

위의 예를 보면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처리할 경우의 문제점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즉 (4다)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다’가 끝바꿈을 하는 현상이 (4가, 나)에서의 현상과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사’나 ‘형용사’와 같은 용언이 끝바꿈을 하는 현상을 ‘활용(conjugation)’이라고 하여, 명사어 뒤에 조사가 통합되어 해당 명사어로 하여금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이게 하는 현상인 ‘곡용(declension)’과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법적 기술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두 범주는 상이한 문법적 범주이므로 서로 넘나들어 쓰일 수 없는 범주라고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법적 처리일진대, 어찌하여 국어의 서술격 조사는 (4다)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문법적 범주를 넘나들면서 사용될 수 있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⁸⁾. 물론 여기서의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현행 학교 문법에서, 국어에서는 ‘활용’과 ‘곡용’의 범주를 넘나들면서 사용되는 경우가 비단

7) 따라서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설명하고 있는 현행 학교 문법에서는 이들 활용형들 또한 모두 ‘서술격 조사’로 처리할 수밖에 없고, 현재 통용되고 있는 ‘사전’에서도 모두 ‘조사’로 기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학교 문법에서 ‘이다’를 ‘형용사’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학생이라도 먼저 가라”에서의 ‘이라도’마저 ‘형용사’로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은 주의를 요하는데, 이는 “그의 이름조차 모른다”에서의 ‘조차’가 ‘좃다’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서 ‘조차’를 동사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이’ 활용형과 조사의 식별 기준에 대해서는 한용운(2003: 194)를 참고하기 바란다.

8)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약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논자에 따라서는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붙어 끝바꿈을 하는 현상인 ‘활용’이나, 명사의 뒤에 조사가 붙어 끝바꿈을 하면서 명사로 하여금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게 하는 현상인 ‘곡용’을 유사한 성격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어 문법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관점은 문법 연구 초창기이나 가능했던 것으로서, 지금은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활용’과 ‘곡용’을 별개의 현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에서 그러한 경우가 발견된다는 식의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면, 두 범주를 넘나드는 현상이 국어의 일반적인 현상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으나, 아무리 보아도 이처럼 ‘극용’과 ‘활용’이 동시에 나타나는 국어의 다른 현상은 없음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제의 제기는, 동시에 또 다른 문제와 연관되어 다음과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즉 현재의 학교 문법적 기술 방식은, “그렇다면 왜 다른 조사들은 활용을 하지 못하는가?”와 같은 추가적인 의문의 제기를 얼마든지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과연 현행 학교 문법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본고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일단 이러한 문제가 학교 문법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처리하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학교 문법에서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정도가 고작인 것으로 보인다. 즉 한철우 외 7인(2017: 89)에서와 같이 “이 중에서 서술격 조사는 다른 조사와 달리 동사나 형용사처럼 활용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와 같이 기술하거나, 이관규 외 6인(2017: 70)에서처럼 “조사 가운데 소위 서술격 조사 ‘이다’는 예외적으로 가변어에 속한다. ‘이다, 이니, 이면……’ 등에서 보는 것처럼 ‘이-’ 다음의 어미가 여러 형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와 같이 기술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⁹⁾. 따라서 이 정도로만 미루어 보아도, 현재의 학교 문법에서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처리한 결과 유발되는 문제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9) 외에도 이삼형 외 8인(2017: 164)에서는 “특히 체언을 서술어가 되게 하는 ‘이다’는 서술격 조사라고 하는데, 마치 동사나 형용사처럼 활용한다.”와 같은 설명을 볼 수 있고, 이도영 외 6인(2017: 88)에서는 ‘이다’를 형태상으로는 ‘가변어’로, 기능상으로는 ‘관계언’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설명 방식은 1985년에 발간된 국정 체제의 문법서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편(1985: 21)에 나타난 “서술격 조사에는 ‘이다’가 있다, 이 말은 자립성이 있는 말에 붙어서 서술어를 만드는데, 다른 조사와는 달리, 활용을 하는 특수성이 있다.”는 설명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이다.

4. ‘서술격 조사’ 관점의 채택으로 야기되는 또 다른 문제들

4.1. 지금까지 간단하게나마, 현행 학교 문법에서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처리하여 야기되고 있는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서술격 조사’ 관점의 채택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처리하다 보니, 이러한 설명 방식이 국어의 다른 현상에 대한 설명 방식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나 논의의 본질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1985년에 국정 체제의 학교 문법서가 등장하기 이전의 학교 문법 상황에 대해 좀 더 살필 필요가 있어 보인다. 1985년 이전의 상황이 어땠었기에 1985년 국정 체제의 학교 문법서에서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확정하게 되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도 간단하게 지적했다시피,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검인정 학교 문법서의 내용은 체제만 검인정으로 바뀌었을 뿐, 1985년부터 2011년까지 27년간 유지되어 온 국정 체제의 단일 교과서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언급하였는바, 1985년에 국정 체제의 단일 교과서가 등장하게 된 주된 배경으로, 1984년까지 검인정 체제의 학교 문법서가 발간되면서 문법서의 저자마다 특정 국어 현상, 즉 ‘이다’의 문법적 처리 문제와 ‘보어’의 범위 문제에 대해 전혀 다른 설명 방식이 적용되면서 야기되는 문제들¹⁰⁾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¹¹⁾. 우선 ‘이다’의 문법적 처

10) 예를 들면, 입시를 목전에 둔 고등학생들의 불만 외에 입시를 지도하는 교사들의 불만뿐만 아니라 입시를 관리하는 대학 측의 어려움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11) 당시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고영근(2000: 34)에서는 “문법 교과서가 5종으로 제한되었지만 세부 사항에 이르러서는 저자마다 서술 내용이 달라 문법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가 어렵다는 여론이 비등하여 문교부가 주관이 되어 이번에는 단일 국정 교과서를 편찬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때에는 고등학교 전 과정에 부과되었던 문법이 인문사회계로 축소되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교육 과정이 달라지니 고등학교의 문법 교과과의 이수 범위가 축소되어 간 것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리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내용을 먼저 살피기로 하자.

사실상, 1985년 국정 체제의 학교 문법서에서 ‘이다’를 ‘서술격 조사’ 관점을 채택하게 된 데는, 1985년 이전의 상황이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처리하는 관점 외에도 ‘서술격 조사’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서 최현배(1937/1954) 등에서의 ‘지정사’로 처리하는 관점이 팽팽하게 의견의 대립을 보였던 당시의 상황을 해소하고자, 고영근과 남기심이 주도가 된 국정 체제의 문법서 집필자들이 ‘지정사’의 관점을 택하는 대신에, 앞에서 언급하였던 두 가지 이유로 인해 당시 대부분의 문법서에서 채택하고 있던 ‘서술격 조사’ 관점을 채택하게 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¹²⁾.

그러나 문제는 ‘이다’의 문법적 처리가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처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서술격 조사’ 관점을 채택하다 보니, 1985년 이전의 상황이 ‘이다’의 문제 말고도 ‘보어’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던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보어’의 범위를 ‘이다’를 ‘지정사’로 처리하는 관점에서 주장했던 관점을 받아들이면서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¹³⁾. 다시 말하면 1985년 국정 체제가 등장하기 이전의 상황이 ‘이다’ 문제만으로 의견의 대립을 보인 것이 아니라, ‘보어’의 범위 문제를 놓고도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었다는 것으로서, 당시의 상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일단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처리하는 대부분의 문법서에서는 ‘보어’의 범위를 ‘보어’에 붙는 ‘조사’의 형태를 별반 고려하지 않고 아래의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 목적어가 아닌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면 모두 ‘보어’로 처리한 데 반해, ‘이다’를 ‘지정사’로 처리하는

12) 당시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고영근(2000: 34-35)에서는 “1963년의 문법 체계와 용어를 준수하는 관점에 서되, 그 사이 단어의 성립 문제로 문제가 많았던 지정사 ‘이다’는 단어로 인정하되 서술격조사라 하여 조사로 보기로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13) 여기서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은, ‘보어’의 설정 자체에 대한 이론 내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로, ‘이다’가 ‘서술격 조사’로 빠지는 대신 ‘되다’가 설정되면서, ‘되다’와 ‘아니다’라는 두 개의 서술어만이 보어를 요구하는 것으로 한정하다 보니, 이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후술하기로 한다.

대표적 관점인 최현배(1937/1954)에서는 ‘보어’의 범위를 아주 좁혀서 (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정사’인 ‘이다’와 ‘이다’의 부정형인 ‘아니다’의 앞에 조사 ‘이/가’와 통합하여 나타나는 것만을 ‘보어’로 인정하는 관점이 대립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와 같다 보니 1985년 국정 체제의 문법서 집필자들은 일단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확정된 후 ‘보어’의 범위를 ‘조사’의 형태가 ‘이/가’인 경우로 국한한 후자의 관점을 택하면서, ‘이다’를 ‘되다’로 대체한 것으로 여겨진다¹⁴⁾.

(5) 가. 국어는 영어와 다르다.

나. 나는 너를 친구로 삼았다.

다. 우리는 여기를 근거지로 삼았다.

라. 우리는 경상도를 ‘영남’이라고도 부른다¹⁵⁾.

(6) 가. 네가 누구인가? 나는 종철이다.

나. 고래는 고기가 아니다. 그는 영웅이 아니다.¹⁶⁾

14) 사실 이러한 절충적 관점은, 1985년 당시의 국정 문법서 집필자들의 독창적인 생각이었 다기보다는, 정인승(1949)에서도 이미, “구름이 비가 된다”나 “눈은 비가 아니다”와 같은 예를 들면서 ‘보어’의 범위를 ‘되다’와 ‘아니다’의 서술을 보충하는 것으로 한정하였 던 것을 보면, 정인승(1949)의 관점을 그대로 이어받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 정인승(1949)에서의 이러한 관점은 정인승(1956)에서는 변화가 생기면서 보어의 범위가 다른 문법서에서의 관점과 마찬가지로 대폭적으로 넓어지게 되는데, 예컨대 정인승 (1956: 168)을 보면, ‘보어’의 범위가 ‘되다’와 ‘아니다’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가, 와/과, 만’ 등의 조사를 “이름씨를 안갯은 풀이씨의 기움말 되게 정하여 주는 토씨”라고 하면서 ‘보어’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그런데 정인승(1949, 1956)의 논의는 우형식(2002)에서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설명 방식의 변화는, 관점이 바뀌면 설명 방식 또한 변할 수밖에 없음이 당연하겠 으나, 당시의 상황으로 특별한 이론적 배경의 변화가 아니었음을 고려할 때 쉽사리 납득 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15) 이들 예는 이승녕(1968: 51-52)에서 가져온 것으로서, “이와 같이 ‘영어와’, ‘친구로’, ‘근거지로’, ‘영남이라고도’가 있어야 문장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영어와’, ‘친구로’, ‘근거지로’, ‘영남이라고도’가 다 체언에 조사를 연결한 것이다. 이 러한 성분을 보어라고 부른다.”고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6) 이 예는 최현배(1968:115)에서 가져온 것으로서, 최현배(1968)에서 보어의 범위를 ‘이/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반영된 결과, 1985년의 국정 체제의 문법서에 나타난 ‘보어’의 범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7) 1985년판 국정 체제 문법서에서의 ‘보어’에 대한 설명

“서술어가 되는 용언 가운데에서 ‘되다’나 ‘아니다’ 같은 것은 두 자리 서술어로서 다음 보기에서와 같이 특수한 문장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18) 가. 물이 얼음이 되었다.

나. 나는 바보가 아니야.

18-(가), (나)는 ‘얼음’과 ‘바보’와 같은 말이 없으면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 이 ‘얼음’과 ‘바보’와 같은 말을 보어(補語)라고 한다.”¹⁷⁾

가) 조사가 통합된 것만을 보어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최현배(1937/1954)에 따르면 대략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한다. “1. 견중 그림씨가 월의 풀이가 될 적에는, 그 견중의 대중(표준)을 보이는 말이 필요함은 사실이다. ...중략... 그러나 이러한 돕는 말을 반드시 요구함은 견중 그림씨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그림씨들도 두 가지의 모양을 견중에 쓸 적에는 반드시 대중을 보이는 말이 소용된다. ...중략... 이와 같이 한 가지 말이 그 완전 여부(與否)의 대중을 어테에다가 둘 것인지 알 수 없게 된다. 2. ‘움직씨의 어떤 것’이란 것도, 그 쓰인 여부에 따라서, 그 월의 뜻이 되기도 하며, 안 되기도 함이 견중 그림씨의 경우에서와 같다. 3. 시간과 공간에 관한 제한적(制限的) 언어(그것은 자리 토씨의 도움을 입은 입자씨이다) 따위는 그저 풀이씨의 뜻을 더 밝게 하기 위하여 쓰이는 것이 아니요, 일층 근본적(根本的)이요, 필연적인 것인즉, 꾸밈말이 아니요, 기움말이라 하였다. 만약 이렇게까지 나간다면, “나는 아침 다섯 시에 일어났다”의 ‘아침 다섯 시에’는 기움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째서 이런 말을 기움말이라 할 수 있을까? 곧 “나는 일어났다”만으로도 그 뜻이 완전하지 아니한가? 그뿐아니라, 앞에서는 ‘아침 다섯 시에’가 기움말이 되면서도 “나는 오늘 일찍 일어났다”의 ‘일찍’은 기움말이 못 되게 (기움말은 입자씨란, 조건 때문에) 되니, 어테에서 그 구별을 찾을 수 있을까? 그 사이에 의의의 충족상(充足上) 어떤 차이가 있는가? 도모지 알기 어렵다. ...하략... ”.

- 17) 이러한 설명 방식은 현재의 검인정 학교 문법서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예컨대 이도영 외 6인(2017:129)에서, “보어(補語)는 목적어와는 다르면서 문장의 의미를 완성하는 데 꼭 필요한 것으로, 서술어의 의미를 보충한다고 해서 보어라고 한다. ‘되다’와 ‘아니다’는 보어가 필요한 서술어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다음과 같이 ‘이/가’ 조사와 통합되면서 ‘되다’와 ‘아니다’ 서술어 앞에만 나올 수 있는 성분을 ‘보어’로 처리하도록 확정한 1985년도 국정 체제의 설명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임을 알 수 있겠다.

그러므로 당시의 사정이 이와 같았다면, ‘보어’의 범위 설정 문제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음은 당연한 귀결로서, 또 하나의 문제란 바로 (5)의 각 예에서 밑줄이 그어진 ‘영어와, 친구로, 근거지로, 영남이라고도’와 같은 문장 성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보어’의 범위를 ‘조사’의 형태가 ‘이/가’인 경우로 국한한 관점을 택하다 보니, (5)의 각 예에서 밑줄이 그어진 성분들이 결코 ‘보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과연 1985년 국정 체제의 학교 문법서 및 국정 체제를 이어받고 있는 현행 학교 문법에서는 ‘영어와, 친구로, 근거지로, 영남이라고도’와 같은 성분을 어떻게 처리하였을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5년도의 학교 문법서 집필자들은 당시 학문적으로도 한참 논의가 되고 있던 개념인 ‘서술어의 자릿수’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8) 고영근(2000:35)에서의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

“그러면서도 주시경의 통사 이론을 바닥에 깔고 그 사이 이루어진 문장론과 텍스트 이론에 따른 연구 성과를 폭넓게 수용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문법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제작에 만전을 기하였다. 교과서 집필은 고영근과 남기십이 중심이 되었다.”

위의 (8)을 보면 ‘그 사이 이루어진 문장론과 텍스트 이론에 따른 연구 성과를 폭넓게 수용하여’라는 구절을 통해 당시의 사정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겠는데, 이미 (7)에서도 ‘두 자리 서술어’라는 용어로 제시된 것처럼, 1985년 당시의 학교 문법서 집필자들은, 당시 한창 논의가 되고 있던 언어 이론에서 상당한 설명력을 발휘하고 있던 ‘하위 범주화(subcategorization)’ 개념을 ‘서술어의 자릿수’ 개념으로 변용해서, (5)의 각 예에서 밑줄이 그어진 ‘영어와, 친구로, 근거지로, 영남이라고도’와 같은 문장 성분을 ‘필수적 부사어’로 설정하여 설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다음을 보자.

- (9) 1985년판 국정 체제 문법서에서의 ‘필수적 부사어’에 대한 설명
“위에서 부사어는 부속 성분으로서 수의적(隨意的)으로 쓰이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서술어가 되는 용언의 종류에 따라서는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다.

11. (가) 순이가 너에게 무엇을 주더냐?
(나) 이 편지를 우체통에 넣어라.
(다) 할아버지는 조카를 양자로 삼으셨다.
(라) 이 그림이 실물과 똑같군요.

11의 문장들은 밑줄 그은 부사어가 없으면 불완전한 것이 된다. 그것은 이들 각 문장의 서술어의 특질에 말미암는 것이다.”

따라서 이로 미루어 보면 ‘필수적 부사어’라는 성분의 설정은, 1985년도 국정 체제에서 처음 도입된 방식임을 알 수 있겠는데, 이러한 설명은 지금의 검인정 체제의 문법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¹⁸⁾, 국정 문법서가 등장했던 1985년 당시에는, 1984년까지의 학교 문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었던 ‘이다’의 문법적 처리 문제에서부터 ‘보어’의 범위 문제 및 ‘필수적 부사어’ 설정의 필요성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논란거리를 단번에 해결해주는 문법적 개념으로 인식되었음이 확실해 보인다.

18) 예컨대, 한철우 외 7인(2017:126)에서는, “서술어의 특성에 따라 부사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성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사어를 필수적 부사어라고 한다.”는 설명과 함께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9) 가. 영이는 얼마와 닮았다.
나. 나는 너와 다르다.
다. 영수는 학교로 향했다.
라. 아버지는 그 아이를 양자로 삼으셨다.”

4.2. 지금까지 간단하게나마, 현재의 검인정 학교 문법서에서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처리하고 있는 이유 및 ‘보어’의 범위를 ‘되다, 아니다’에 선행하는 성분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필수적 부사어’ 설정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살피면서, 이렇게 처리하게 된 것이 1985년에 시작된 국정 체제의 문법서에서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확정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언급하였는데,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1985년 국정 체제의 문법서가 발간된 이유는 명백하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1985년 이전까지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살피면서 현행 학교 문법에서의 설명 방식에 상당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는 아무리 학교 문법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선택적 설명 방식이 최선의 설명 방식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4.2.1. 이러한 의구심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현재의 학교 문법의 역할이, 단순히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속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더 이상 국어 문법을 접할 기회가 없다는 데 조금이라도 생각이 미칠 수 있다면, 대다수의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에게 ‘최종 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상당히 상승하면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도¹⁹⁾ 우리나라의 학교 문법이 ‘표준 문법’ 내지는 ‘대표 문법’의 역할까지 떠맡고 있기 때문이다²⁰⁾.

19) 최근 한국어의 위상이 상승한 것에 대해 권재일(2012:18)에서는, “이렇듯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상당한 수에 이르러 세계 여러 언어 가운데 13위쯤 되는데 이탈리아나 프랑스어 사용 인구와 비슷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처럼 한국어의 최근의 위상은 1985년과는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20) 이러한 경우를 남기심·고영근(2014)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1993년도에 발행된 제2판의 경우 책의 서문에서, “그 사이 잘못된 점과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 중등 학교 국어교사 여러분에게 우선 고마운 인사를 드리는 바이다. 그밖에 국어교육과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우리말을 학습·연구하는 외국인, 국어학도 및 언어학도들의 따가운 질정도 크게 도움이 되었음을 밝혀 인사에 대신하고자 한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요즘에는 영어를 모국어인 한국어 못지않게 능숙하게 구사하는 한국인이 상당한 추세이므로, 가령 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에게 한국어에 대한 문법적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는 것이다. 과연 그 한국인은 외국인에게 ‘이다’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당연히 ‘서술격 조사’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한국인은 외국인에게 “한국어에서는 ‘서술격 조사’가 동사나 형용사처럼 어미가 변하는 특성이 있다”라는 설명도 덧붙일 수밖에 없다. 이 또한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설명은 해당 외국인이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통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외국인이 어느 정도 한국어에 익숙해지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품고 다시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즉 그 외국인이, “한국어에서 ‘이다’가 ‘조사’라면, 왜 ‘조사’가 활용을 하는 것이고, 나의 모국어인 영어는 ‘동사’만이 서술어가 되는데, 왜 한국어는 ‘동사, 형용사, 명사+조사’가 서술어가 되느냐?”고 물을 경우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다’를 ‘서술격 조사’라고 대답한 한국인은 계속해서 “그게 바로 한국어의 특성이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대답이 올바른 대답일까? 물론 우리나라의 학교 문법에 따르면 올바른 대답임이 확실하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자. 한국어가 특이한 것인가, 설명 방식이 특이한 것인가? 대다수의 모국어 화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본 경우는 드물겠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상 자명하다. 후자가 정답이기 때

있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학교 문법의 역할이 단순히 학교라는 현장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한편 2005년에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1·2’도 설명 방식이 학교 문법의 해설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학교 문법의 설명을 따르고 있는데, 책의 제목에도 ‘외국인을 위한’이라고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학교 문법은 ‘표준 문법’ 내지는 ‘대표 문법’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표준 문법’의 개념을, “국내외에서 국어 문법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국어의 자료와 문법 현상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국어 문법 체계”로 설정하고 있는 논의로는 유현경(2015)을 참고하기 바란다.

문이다. 즉 “설명 방식이 특이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왜 우리나라의 학교 문법은 이러한 특이한 설명 방식을 택했느냐는 원론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없겠는데, 이처럼 특이한 설명 방식은 1985년 당시의 학교 문법서 집필자들이 자초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²¹⁾.

4.2.2. 한편 이러한 의구심 외에도 더 생각해 볼 것으로서, 현재의 학교 문법이 학교 문법의 특성상 규범적 성격의 문법 범주에 속한다 하더라도, “*철수의 학생다”와 같은 잘못된 문장이 아니라 “철수가 학생이다”처럼 올바른 문장을 대상으로 설명을 함에 있어서, 과연 하나의 설명만을 강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학생이다’가 서술어라는 설명을 위하여 ‘이다’가 반드시 ‘서술격 조사’로만 설명되어야 한다는 규칙이 가능할 수 있는느냐는 것이다. ‘이다’가 ‘서술격 조사’가 아닌 다른 방식의 설명은 과연 잘못된 것일까? 오히려 다른 설명 방식이 더 일관성이 있다면 지금까지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설명해 온 방식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규범적인 성격이 적용되어야 할 때가 있긴 하다. 한글 맞춤법과 같은 어문 규정의 경우, 가령 ‘꽃이’가 ‘[꼬치]’로 발음된다 하더라도 발음대로 적지 않고 ‘꽃이’라고 적게 하는 등의 규정을 따르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꼬치]’ 발음을 인정하여 표기에 반영할 경우 ‘[꼬시]’라는 발음 또한 표기에 반영을 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개인의 발음을 모두 표기에 반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과 같은 규범적 성격의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²²⁾.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를 문법적 설명 방식에서의 규범성과 동일한 것으로

21) 현재로서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1985년 국정 체제의 문법서부터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확정한 방법에서 벗어나서 ‘용언’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자세한 것은 후술하기로 한다.

22) 이러한 지적은, 임홍빈(2000: 17)에서 “라틴 문법이 ‘정서법’과 ‘구두법’을 주요 부문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규범 문법의 명령적 성격이 어디에서 유래하는 것인가를 명확히 해 준다.”고 논의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본고의 생각이다²³⁾. “철수가 학생이다”에서 ‘이다’를 ‘서술격 조사’가 아닌 다른 문법적 용어를 붙여 설명한다고 해서 “철수가 학생이다”가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학교 문법서 집필자들이 학교 문법이 규범적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에 너무 얽매인 나머지 문법적 설명 방식조차도 규범적이어야 한다는 데 너무 천착한 것으로 여겨진다²⁴⁾.

4.2.3. 그러나 앞의 두 문제보다 더 원론적인 것으로서, 도대체 학교 문법의 연구 방법론이란 것이 따로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현재의 학교 문법이, 학교 문법의 독자적인 연구 방법론에 따라 연구가 된 결과물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의 학교 문법이, 학교 문법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방법론에 따라 연구가 이루어져 결과가 도출된 것이라면, 학교 문법의 설명 방식이 학문적 관점의 문법과 다소 달라도 별반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과연 현재의 학교 문법이 독자적인 연구 방법에 따른 결과 설정된 문법 체계일 것인가?

사실상 이러한 문제의 제기는 우문에 불과하다. 학교 문법의 연구 방법론이란 것이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기존의 학설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방법론을 선택하는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학교 문법의 독자적인 방법론이란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 관점에서의 학설이란 것도, 시대의 흐름이나 연구자의 관점 변화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23) 학교 문법의 규범적 성격에 대한 비판적 논의로는 줄고(2015)를 참고하기 바란다.

24) 본고의 이러한 지적은 김광해(2000: 64)에서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20세기 내내 전개되어 왔던 학교 문법 교육은 중세 유럽에서 라틴어 교육을 할 때 사용하던 이른바 학교 문법(school grammar)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이 학교 문법은 규범 문법(prescriptive grammar)의 기능을 일부 대신하면서 실용 측면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었지만, 이런 식의 문법 교육은 자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교육에서는 교육적 가치를 의심받아 왔던 것이며, 서구에서는 적어도 1930년대 이전에 교육 현장에서 자취를 감춘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고 보면, 필요할 경우 일정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학문적 관점의 연구 성과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 (8)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1985년도 국정 체제의 문법 교과서가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그 사이 이루어진 문장론과 텍스트 이론에 따른 연구 성과를 폭넓게 수용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문법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제작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²⁵⁾.

그러나 문제는 어떤 개념을 도입하여 이전의 논란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국어의 제반 현상을 통해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은 채, 1985년 이전의 체제를 따르고 있는 현재의 학교 문법적 설명에서는 부분적인 설명력밖에 발휘할 수 없음에도, 1985년의 국정 체제의 문법서에 무리하게 적용한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다음을 보자.

(10) 가. [[철수가] [밥을] [먹었다]]

나. [[[[철수가] [밥을] 먹]]었다]

위의 두 가지 예는 “철수가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에 대한 두 가지 구조 분석을 보인 것으로서, (10가)는 기존의 성분론 관점에 입각한 구조 분석이고, (10나)는 ‘자릿수’ 개념에 입각한 구조 분석을 나타낸 것인데, 1985년도의 국정 문법서 집필자들이 ‘서술어의 자릿수’ 개념을 도입한 주된 이유가, 앞서서도 간단하게나마 1985년 이전의 검인정 문법서에서도 ‘문장론’ 분야에서 주

25) 그러나 1985년부터 2011년까지 27년간 유지되었던 국정 체제의 문법서를 보노라면, 정작 텍스트 이론에 따른 연구 성과가 반영된 것은 편찬자가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로 바뀌게 된 1996년부터임을 알 수 있는데, 1996년에 발행된 문법서에서는, 1985년판과 1991년판과는 다르게 ‘이야기’라는 단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용어는 2002년판에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2011년까지 그대로 사용되다가, 용어의 어색함 때문인지 2012년에 처음 발간된 검인정 문법서부터는 ‘담화’라는 용어로 바뀌게 된다.

된 역할을 했던 ‘문장 성분’에 대한 설명 방식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판단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하였는데, 정작 문제는 ‘자릿수’ 개념이 성분 개념을 강화하기 위한 문법적 개념이 아니어서 성분과 자릿수가 1:1 대응을 이룰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방식에서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²⁶⁾.

그러므로 상황이 이와 같다면, 현재의 학교 문법에서 선불리 ‘서술어의 자릿수’ 개념을 도입하여 성분론에 기반한 설명 방식에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것임을 알 수 있겠는데, 현재의 학교 문법이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사실상 한 가지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의 성분론에 입각한 설명 방식을 버리고 ‘자릿수’ 개념에 입각하여 문장론에 대한 설명 방식을 다시 제시하거나 아니면 성분론적 관점에 입각한 설명 방식을 그대로 두고 ‘자릿수’ 개념을 폐기하는 방법밖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본고가 보기에 현재로서는 후자의 방법이 타당한 듯 보인다. 이는 일단 ‘주어’나 ‘서술어’나 하는 개념이 어제 · 오늘 설정된 개념이 아니라, 이미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등장한 개념이기도 하거니와, 우리 국어의 경우 ‘이다’의 문제 및 ‘보어의 범위’ 문제만 적절하게 개선된다면 학교 문법적 범위에서는 성분의 개념만으로도 국어의 문장 구조를 설명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5. 자릿수로 살핀 ‘서술격 조사’ 관점의 결정적인 문제점

지금까지 현재의 학교 문법에서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처리하고 있는 이유 및 그러한 처리 방식이 최선의 방식인지에 대한 몇 가지 의구심에 대해 다소 장황하게 논의하였는데, 이러한 문제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논자에 따라서는, 현재의 학교 문법에서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처리하는 설명 방식이, 단지 관점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서, 적어도 학교 문법 체계 내에서 별반 문

26) 이 문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졸고(2012)를 참고하기 바란다.

제가 유발되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식의 반론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도 여겨진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현재의 학교 문법에서와 같이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처리할 경우 유발될 수 있는 문제로서,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 외에 학교 문법 자체에서 발견되는 결정적인 문제점에 대해 살피기로 하자. 즉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처리하고 있는 현재의 학교 문법적 설명 방식이 과연 얼마나 타당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검증해 보자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현재의 학교 문법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5.1. 일단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자릿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사실상 현행 학교 문법에서 ‘자릿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현행 검인정 문법 교과서 중의 하나인 이도영 외 6인(2017)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저 막연하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²⁷⁾.

(11) 이도영 외 6인(2017: 128)에서의 자릿수 설명

“문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문장 성분의 수와 종류는 서술어에 의해 결정된다. 예컨대 ‘예쁘다’는 ‘누가’나 ‘무엇이’에 해당하는 하나의 성분만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먹다’는 ‘누가’와 ‘무엇을’에 해당하는 두 개의 성분이 필요하다. 이처럼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성분의 수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예쁘다’는 한 자리 서술어, ‘먹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물론 학교 문법의 범위 내에서는 이 정도의 설명만으로도 별 문제가 없을

27) 이러한 설명 방식은, 이미 언급했듯이, 현재의 검인정 문법서들이 1985년에 발간된 국정 체제의 문법서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으로서, 1985년도 국정 문법서의 69-70쪽을 보면 “서술어가 되는 용언은 종류에 따라 주어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주격이나 목적격 이외의 격조사를 가지는 필수적 문장 성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중략... 이와 같이 서술어에는 주어 한 자리만 필요로 하는 것과, 주어 이외에 또 한 자리나 두 자리의 필수적 문장 성분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각각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라고 한다.”와 같은 설명만을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것으로 여겨지기는 한다. 그러나 사실상 ‘자릿수’의 개념이란, 고영근·남기심(2014: 258)에서도 지적하고 있다시피, 일반적으로 용언이 어떤 말과만 어울릴 수 있는 선택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개념으로서, 어떤 용언이 서술어로 쓰일 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격성분의 수, 즉 ‘논항’의 수를 말하는 것인데, 변형 문법에서 ‘하위범주화’ 내지 ‘선택 규칙(selectional rule)’이라는 용어로 지금까지도 통사론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들 개념이 1985년판 국정 문법 교과서에 도입된 것을 보면, 당시의 국정 문법서 집필자들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개념을 원용하여 1985년 국정 문법서가 등장하기 전까지 논란이 되고 있던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처리하면서 ‘보어’의 개념도 정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수적 부사어’의 설정까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얼핏 보기에는 그럴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과연 그럴 것인가? 이제부터 ‘자릿수’ 개념을 국어의 몇 가지 현상에 적용해 보도록 하자.

(12) 가. 철수가 밥을 먹었다.

나. 먹다 : (타)동사, [누가, 무엇을, ____]

(12가)에서 보는 것처럼, 국어에서 ‘먹다’가 서술어로 사용된 경우를 예로 들면, ‘먹다’는 (12나)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단 품사로는 ‘(타)동사’에 속하고 ‘누가’와 ‘무엇을’을 각각 ‘주어’와 ‘목적어’로 취하는 ‘두 자리 서술어’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품사적 속성이나 자릿수 속성은 아래의 예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각 자리의 범주가 ‘단어’가 아닌 ‘구(phrase)’나 ‘절(clause)’로 바뀌었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13) 가. 철수가 [새 밥]을 먹었다.

나. 철수가 [자기가 어제 남긴 밥]을 먹었다.

다시 말하면, 서술어로 ‘먹다’가 사용되는 한에 있어서는, 해당 단어의 품사가 바뀐다든지 자릿수 속성에 변화가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²⁸⁾. 그런데 이러한 속성은 해당 단어의 앞에 부정사를 통합하여 ‘부정문’으로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즉 아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2가)의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꾸었다고 해서 품사적 속성이나 자릿수 속성에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논의의 편의상 형용사가 서술어로 사용되는 예를 추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²⁹⁾.

(14) 가. 철수가 밥을 먹었다.

나. 철수가 밥을 안 먹었다.

(15) 가. 영이가 예쁘다.

나. 영이가 안 예쁘다.

위의 예는 동사인 ‘먹다’와 형용사인 ‘예쁘다’가 서술어로 사용된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바꾸었을 경우, 각각의 서술어의 품사적 속성과 자릿수 속성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나,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의 속성에 전혀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16) 가. 먹다 : (타)동사, 두 자리 서술어

나. ‘안 먹다’에서의 ‘먹다’ : (타)동사, 두 자리 서술어

- 28) 여기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주동사와 능동사로 사용되는 ‘먹다’가 사동사인 ‘먹이다’나 피동사인 ‘먹히다’로 바뀌는 경우까지 자릿수 속성에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예컨대, “철수가 밥을 먹었다”가 “철수가 동생에게 밥을 먹였다”와 같이 사동문으로 바뀌는 경우는, 품사의 변화는 없으나 자릿수에 변화가 초래될 수 있고,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가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와 같이 피동문으로 바뀌는 경우는, 품사 및 자릿수의 변화는 없으나 내적 성분에 변화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 29) 국어의 부정문 형식이 두 종류라는 것은 부언을 요하지 않을 정도로 자명한 사실이나, 사실상 품사의 속성이나 자릿수 속성에는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정사 ‘안’이 서술어의 바로 앞에 위치하는 ‘단형 부정문’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17) 가. 예쁘다 : 형용사, 한 자리 서술어

나. ‘안 예쁘다’에서의 ‘예쁘다’ : 형용사, 한 자리 서술어

따라서 (14-17)의 경우로 미루어 보아, 국어에서는 부정사인 ‘안’이 서술어의 바로 앞에 통합되었다고 해서 부정사로 인해 어떤 통사적 변화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³⁰⁾, 문제는 이러한 논의가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 학교 문법적 논의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8) 가. 철수가 학생이다.

나. 철수가 학생이 아니다.

(19) 가. 학생이다 : 명사+조사, 한 자리 서술어

나. 아니다 : 형용사, 두 자리 서술어

즉, 현행 학교 문법에서는 (18가)의 경우 ‘명사+조사’의 통합체인 ‘학생이다’가 서술어로 기능하는 ‘한 자리 서술어’로 처리하고 있는데, (18가)의 긍정문에 부정사 ‘안’이 통합되어 부정문으로 바뀐 것이 확실한 (18나)에서는³¹⁾

30) 물론 용언에 따라서는, 아래와 같이 ‘자릿수’를 달리하면서 자동사와 타동사로 넘나드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당 문장들을 부정문으로 바꿨다고 하여 자릿수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의 논의는 그대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아이들이 즐겁게 논다 → 아이들이 즐겁게 안 논다 / 놀지 않는다

(자동사, 1자리 → 1자리)

아이들이 옷을 논다 → 아이들이 옷을 안 논다 / 놀지 않는다 (타동사, 2자리 → 2자리)

31)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혹자는 부정사 ‘안’의 원래의 형태는 ‘아니’였을 뿐만 아니라 안병희(1959), 고영근(1987), 이현희(1994) 등에서의 논의대로, “이 生이며 生 아니를 굴히느니”(법화경언해 5:3)와 같이 중세까지는 ‘아니’ 뒤에 목적격 역할을 하는 ‘-를’이 통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명사적 기능’도 수행했었으므로, ‘아니다’가 ‘안(부사적 성격의 부정사)+이다(용언)’의 통합형이 아니라 ‘안(명사)+이다(조사)’의 통합형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적절한 반박은 줄고(2001)를 참고

‘아니다’만이 서술어로 기능하는 ‘두 자리 서술어’로서의 형용사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현재의 학교 문법적 설명 방식을 따를 경우, ‘이다’의 경우는, ‘이다’를 제외한 다른 용언이 서술어로 사용되는 경우와는 전혀 다른 설명 방식을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명사+조사’의 복합적 품사가 ‘형용사’로 바뀔 뿐만 아니라, ‘한 자리 서술어’가 ‘두 자리 서술어’로 바뀌는 것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행 학교 문법에서는 “철수가 학생이다”와 같은 문장의 경우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처리하면서 ‘이다’의 통합체인 ‘학생이다’ 전체를 한 자리 서술어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처리 방식은 ‘이다’ 자체가 홀로 쓰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부득이한 조치로 여겨지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학교 문법적 설명을 “철수가 학생이다”의 부정문인 “철수가 학생이 아니다”에 적용할 경우 심각한 모순이 초래된다는 것으로서, ‘이다’가 부정형인 ‘아니다’로 바뀌면 ‘명사+조사’의 복합체가 ‘형용사’로 변할 뿐만 아니라 ‘한 자리 서술어’가 ‘두 자리 서술어’로 바뀐다는 설명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과연 이러한 설명 방식이 바람직하냐는 것이다³²⁾.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현재의 학교 문법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대답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애초에 ‘이다’를 ‘조사’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16, 17)의 예를 보면 해결책이 보인다. ‘안 먹다’에서의 ‘먹다’가 동사라면 부정사인 ‘안’이 없는 ‘먹다’가 동사이고, ‘안 예쁘다’에서의 ‘예쁘다’가 ‘형용사’라면 부정사인 ‘안’이 없는 ‘예쁘다’도 형용사라는 사실에 착안하면, (19)에서

하기 바란다.

- 32) 본고의 이러한 논의에 대해 한 심사위원은, “‘이다’와 ‘아니다’는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계통으로 발전해 온 단어들로서, ‘이다’는 고려 시대 석독 구결에서부터 그 근원으로 보이는 형태들이 발전해 온 것이고, ‘아니다’는 ‘아니+이-’의 결합 형태로 그 근원이 15세기에 나타난다”고 지적하면서 “형태의 근원과 쓰임이 다르게 발전해 온 단어를 현대 국어에서 단순히 반대말의 기능이 있다고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이러한 견해에 대해 현재로서는 마땅한 답변을 찾기가 어렵다.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삼으려 한다.

의 ‘아니다’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부정사인 ‘안’이 없는 ‘이다’가 형용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학교 문법에서 ‘이다’를 ‘조사’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그동안 국어의 현상을 잘못 파악해 온 것으로서, ‘아니다’가 ‘형용사’로서 ‘두 자리 서술어’라면 ‘이다’또한 ‘형용사’로서 ‘두 자리 서술어’로 파악하는 것이³³⁾ 국어의 현상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고³⁴⁾ 문법적으로도 올바른 처리 방식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³⁵⁾.

- 33) 본고의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한 심사위원은, “‘이다’와 결합하는 명사 중에는 접미사 ‘-적’과 결합하는 파생명사도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접미사 ‘-적’과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명사도 논항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하였는데, “그의 생각은 한국적이다”라는 문장의 단형 부정문이 “그의 생각은 한국적인 아니다”가 되기 때문에 접미사 ‘-적’과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 명사 또한 당연히 논항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34)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논자에 따라서는, ‘이다’가 ‘두 자리 서술어’라면 ‘이다’에 선행하는 ‘명사(어)’에는 왜 조사가 통합되지 않는 것이며, 오히려 통합될 경우 “*철수가 학생인 이다”에서처럼 비문이 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아니다’의 경우와 정반대의 경우이므로, ‘이다’를 기존의 학교 문법적 방식대로 ‘조사’로 두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의의를 제기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 따른 문제의 제기는 얼핏 보면 타당한 듯 보이지만, “철수가 반장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에이, 철수(가) 반장이 아니지”보다는 “에이, 철수(가) 반장 아니지”와 같은 용법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을 보면, ‘아니다’라고 해서 반드시 ‘선행 명사(어)’에 ‘조사’가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님이 확실한 이상, ‘이다’를 ‘조사’로 처리하는 데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 35) 이런 견지에서 본다면, ‘이다’에 대한 기존의 두 가지 관점 중 ‘서술격 조사’가 아닌 ‘지정사’로 처리하는 관점이 설명의 일관성 차원에서는 훨씬 더 타당해 보인다. ‘지정사’인 ‘이다’를 부정형으로 바꾼 ‘아니다’ 또한 ‘지정사’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의에서는 ‘이다’가 ‘용언’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최현배(1937/1954)나 허웅(1995: 333-334)에서와 같이 ‘이다’가 ‘지정사’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지는 않는데, 무엇보다 이는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처리하는 관점에서 제기했던 문제, 즉 ‘이다’와 ‘아니다’라는 두 단어만을 위해 ‘지정사’라는 품사를 설정하는 것이 문법적 낭비임에 틀림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따로 논의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비판은 현행 학교 문법에서 ‘보어’를 필요로 하는 두 개의 서술어로 ‘되다’와 ‘아니다’를 설정하고 있는 데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흥미롭다. 즉 논자에 따라서는 ‘되다’와 ‘아니다’라는 두 개의 서술어를 위해 ‘보어’를 설정하느니 차라리 ‘보어’를 설정하지 말고 모두 ‘필수적 부사어’로 설정하는 편이 문법적 간결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본고와 같은 맥락에서 논의한 것이 아니긴 하지만, 임흥빈·장소원(1995: 232-243)에서도, “‘이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활용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어휘적 의미가 미약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조사 가운데 다른

5.2. 지금까지의 논의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1985년 국정 체제의 문법서가 등장할 때의 상황을 검토하면서 드는 아쉬움은 다음과 같다. 즉 요즘에는 ‘이다’를, 기존의 ‘서술격 조사’와 ‘지정사’의 두 가지 관점 외에도³⁶⁾ ‘형용사’나 ‘접미사’ 또는 ‘형식 동사’로 처리하는 관점에 이르기까지³⁷⁾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이들 가운데 ‘이다’를 ‘형용사’로 처리하는 관점이 이미 1981년에 거론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보면, 1985년 당시 국정 체제의 문법서를 집필했던 당사자들이 이런 의견들을 좀 더 폭넓게 파악하여 ‘이다’를 ‘형용사’로 처리했더라면,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처리하면서 유발될 수 있는 문제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이승녕(1961)과 이승녕(1981)에서의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³⁸⁾.

것은 활용을 하는 일이 없다. 이 특성 하나만으로도 ‘이다’는 용언의 하나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고 논의하면서 몇 가지 논거를 더 제시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 36)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최현배(1937/1954)에서 ‘이다’를 지정사로 처리하고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지정사’를 주장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최현배(1937/1954: 207)에서 지적하고 있다시피, “나는 십여 년 전의 초고(草稿)에서는, 여기의 이른 ‘잡음씨’를 토씨 가운데에 넣어서, 이름씨를 풀이말되게 하는 ‘풀이자리 토씨(說明格 助詞)’라고 하였었다. 그러나, 금번에는 위에서 전개한 바와 같이 같은 이론(理論)에서, 이것이 풀이씨에 넣을 것으로 보고서, 다른 풀이씨(움직씨, 그림씨)와 나란히 한 풀이씨로 세워, 잡음씨(指定詞)라 하였노라. 그렇더라도 잡음씨가 바탕스런 생각씨가 되지 못하니, 이것을 토씨로 보내는 편이 차리라 옳다고 생각할 수도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만약 그리한다면, 잡음씨 뿐 아니라, 임자씨 중에도 바탕스런 생각을 가지지 못한 것(것, 줄, 이, 같은 것들)은 역시 한가지로 토씨에 집어 넣어야 될 것이다. 그리하여서는 말본을 풀 수가 없게 되겠은즉,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다’의 문법적 처리와 관련하여 최현배(1937/1954, 1968)에서는 관점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당시의 사정으로는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보는 관점이 대세였던 것 같기는 하다.
- 37) 이들 가운데, ‘접미사’나 ‘형식 동사’와 같은 관점은, 학술적 관점에서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살피지 않기로 한다.
- 38) 여기서는 이승녕(1961)과 이승녕(1981)을 예로 들겠지만,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다’를 최현배(1937/1954: 79)에서 ‘지정사’로 처리하긴 했지만, 그 성격이 ‘잡음씨’는, 그 시제(때매김)에서도, 동사(움직씨)보다 형용사(그림씨)에 가깝다 할 만하나라”고 지적을 했었다는 것이다.

(20) 가. 이승녕(1961: 299)에서의 논의

“이러한 ‘-이라’의 活用에서,

사름-이라	사름-이로다
道- 라(>되라)	道- 로다(>되로다)
불휘(根)-라	불휘-로다

語幹은 ‘사름, 道, 불휘’며 ‘-이라, - | 라, -라’는 語尾인 것이다. 絶對로 ‘이, |, (零)’이 語幹일 수는 없다. 따라서 ‘사름이라’는 ‘敍述格’이 되나 오직 活用할 따름인데, 體言이 活用할 수 있느냐 하지만, 語幹 ‘이’가 活用하는 것도 아니고 ‘사름이라(사름미라)’의 敍述格 ‘이라’가 用言語尾와 같아 ‘사름’이 語幹으로서 活用하는 것이다. 또 ‘이라’와 ‘아니라’를 같이 다루는 說道 보았으나, ‘아니’는 副詞로서 ‘이라’의 ‘이’와는 달라 훌륭한 語幹이며, ‘아니 + (零) + 라’의 連結이다. 體言이 活用한다고 함에 지나친 疑問을 가질 必要는 없는 것이다.” (밑줄은 필자에 의한 것임)

나. 이승녕(1981: 360)에서의 논의

“그리고, 소위 指定詞 또는 敍述格 ‘이다’는 形容詞에 편입시켰다. ‘이다’의 ‘이’가 語幹이 아님은 물론이지만, 格이라고 하면 格이 動詞나 形容詞의 活用과 같이 그렇게 넓게 活用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 집이었더라면’에서 ‘-었더라면’이 活用形인데 그것이 敍述格일 수는 없고, 이런 경우 ‘집(家)’이 語幹이고 名詞가 形容詞의 活用을 취하여 복잡한 敍述의 구실을 한 것으로 보았다.” (밑줄은 필자에 의한 것임)

따라서 1985년부터 ‘이다’를 형용사로 처리했더라면, 적어도 우리나라의 학교 문법에서는, 현재의 학교 문법에서처럼 국어에서 서술어로 사용될 수 있는 품사로서 ‘동사’와 ‘형용사’ 외에도 ‘명사’, ‘조사’와 같은 품사도 서술어로 사용될 수 있다는 식의 기술을 하는 대신에, ‘동사’와 ‘형용사’, 즉 ‘용언’만이 서술어가 될 수 있다는 기술을 가능하게 하여 문법적 설명력이 보다 극대화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³⁹⁾.

6. 나오기

지금까지 본고는 2012년부터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와 문법’이라는 과목명으로 실시되고 있는 검인정 학교 문법서에 나타난 문제들 가운데 ‘이다’의 문법적 처리 문제 및 ‘보어’의 범위 및 ‘필수적 부사어’ 설정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현재의 검인정 문법 교과서에 나타난 문제는 사실상 1985년에 발간되었던 국정 체제의 문법서에 나타났던 문제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가 하루라도 빨리 개선되기를 바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논의 결과 현재의 학교 문법서에서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1985년 당시의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국어의 위상이 30여 년 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졌을 뿐 아니라 국어적인 현상에 비해 보더라도 자체 모순을 내포하고 있음이 확실한 이상, ‘이다’를 더 이상 ‘서술격 조사’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용언’으로서의 ‘형용사’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바,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긍정문에 부정사 ‘안’이 통합되어 단형 부정문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단형 부정문의 서술어로 기능하는 ‘동사’와 ‘형용사’의 자릿수 속성과 품사적 속성이 바뀌지

39) 학교 문법에서 ‘이다’를 ‘서술격 조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고의 논의에 대해, 한 심사위원은 ‘이다’를 형용사로 처리하게 되면 현재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이다’를 선행 명사와 붙여 쓰게 되어 있는 것을 띄어 쓰는 것으로 바꾸어야 하므로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현재의 같이 ‘서술격 조사’로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다’를 ‘형용사’로 처리한다고 해서, 띄어쓰기 규정까지 바꾸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이는 어차피 현재 띄어쓰기 규정이 이런저런 이유로 상당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본고가 ‘이다’를 ‘형용사’임을 주장한다고 해서 ‘이다’가 다른 형용사들과 어휘적인 특성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다’의 문법적 처리가 달라진다고 해도 기존의 띄어쓰기 방식은 그대로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법적 성질은 '이다'가 사용된 문장이라고 해서 다를 수가 없다는 국어의 본질적 특성을 이용하였다. 그리하여 '이다'를 '형용사'로 처리하게 되면,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처리하면서 부수적으로 야기되는 문제들, 예컨대, '보어의 범위' 문제 및 '필수적 부사어'의 설정과 같은 변칙적인 문제들 또한 정리될 수 있음도 아울러 논의하였다.

참고 문헌

- 고영근(1987),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 고영근(2000), 「우리나라 학교 문법의 역사」, 새국어생활 제10권 제2호, 국립국어원, 27-46.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 커뮤니케이션북스.
- 권재일(2012), 「세계화 시대의 국어 정책 방향」, 세계화 시대의 국어국문학, 보고서, 17-34.
- 김광해(2000), 「21세기의 문법」, 새국어생활 제10권 제2호, 국립국어원, 63-79.
- 남기심 · 고영근(2014), 『제4판 표준 국어문법론』, 도서출판 박이정.
- 박영목 외 4인(2017),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천재교육.
- 박정규(2001), 「부정법 논의와 관련한 국어사적 몇 문제」, 시학과 언어학 제2호, 시학과 언어학회, 307-328.
- 박정규(2012), 「학교 문법에서의 기본 문형 정립을 위하여」, 한국언어문학 제83집, 한국언어문학회, 5-36.
- 박정규(2015), 「학교 문법의 규범적 성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우리말연구 제43집, 우리말학회, 33-63.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1996), 『고등학교 문법』, 교육부.
- 서울대학교 국어연구소(2002), 『고등학교 문법』, 교육인적자원부.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1985), 『고등학교 문법』, 교육부.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1991), 『고등학교 문법』, 교육부.
- 안병희(1959), 「중세 국어의 부정어 ‘아니」, 국어사 연구(1992, 탑출판사)에 재록, 11-19.
- 우형식(2002), 『국어문장성분 분류의 역사적 연구』, 세종출판사.
- 유현경(2015), 「학교문법 정립에 있어서 표준문법의 역할」, 우리말연구 제43집, 우리말학회, 65-90.
- 윤여탁 외 8인(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 · II』, 미래엔.
- 윤여탁 외 9인(2017),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미래엔.
- 이관규 외 6인(2017),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비상교육.
- 이도영 외 6인(2017),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창비.
- 이삼형 외 8인(2017),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지학사.
- 이승녕(1961), 『중세국어 문법』, 을유문화사.

- 이승녕(1968), 『인문계 고등학교 문법』, 을유문화사.
이승녕(1981), 『개정 증보판 중세국어 문법』, 을유문화사.
이현희(1994), 『중세국어 구문 연구』, 신구문화사.
임홍빈(2000), 「학교 문법, 표준 문법, 규범 문법의 개념과 정의」, 새국어생활 제10권 제2호, 국립국어원, 5-26.
임홍빈 · 장소원(1995), 『국어문법론1』,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최현배(1937/1954),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최현배(1968), 『인문계 고등학교 새로운 말본』, 정음사.
한용운(2003), 『언어 단위 변화와 조사화』, 한국문화사.
한철우 외 7인(2017),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교학사.
허웅(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박정규

단국대학교 교양교육대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031-8005-3514

park6214@hanafos.com

접수 일자: 2017년 6월 8일

심사(수정, 재심) 일자: 2017년 6월 15일~2017년 7월 14일

게재 확정 일자: 2017년 7월 17일

<Abstract>

The Reconsideration of ‘ida(이다)’ in the Korean School Grammar

Park Jeong-Gyu(Dankook Univ.)

Currently, Korean grammar education is being taught for high school students as a subject of ‘reading and grammar’. However, current Korean school grammar follows the contents of the school grammar in 1985. Therefore, the problems of school grammar are continuing. That is, the problem of grammar education in the past continues to be continued. But Korean school grammar is playing a number of roles. It will not only serve as the correct ‘final grammar’ for Korean people but also to serve as a ‘representative grammar’ or ‘standard grammar’ for foreigners representing the Korean language. Therefore, problems in school grammar can cause various side effects. So in this paper, I discussed again the grammatical position of ‘ida(이다)’(‘copula’ in logical term). This discussion, however, relates to the range of ‘boeo(補語)’(commonly referred to as ‘complement’ in grammatical term) continuing to be controversial from the early days of the school grammar to the current school grammar. As a result of review, I found that the ‘ida’ is correct to be treated as an ‘adjective’ and the ‘boeo’ should be removed from the current treatment method to ensure that the range has broadened. In this case, we can remove the ‘essential adverb’ required in current school grammar as a sentence constituent and more consistent explanation is possible.

* Key words : school grammar, predicative case ‘ida(이다)’, adjective, ‘boeo(補語)’, final grammar, standard grammar, representative grammar